

# “수도권 규제 완화 어렵었다”

### 지방 출신 의원들 제동...법령 정비·장외 집회 추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 출신 의원들이 정부가 임의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방 출신 의원들은 오는 12월 비수도권 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연대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갖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등은 9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만 수도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 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모법(母法)인 수정법과 산업집적법 등에

는 대학, 공장 등 각종 시설, 특정 업종의 수도권 입지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법안의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수도권 규제사항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나 지방 출신 의원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모법에 넣을 계획이다.

수정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일부 행위만 허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모법으로 옮기게 되며 산업집적법 개정안도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을 명시하게 된다.

이들 개정안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실시되는 내년 3월 이전에 통과될 경우 정부가 현재 방침대로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들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이 의원은 “수도권 여의도의 모임인 ‘도권 규제철폐반대 비상 국회의원 모임’ 정부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완화를 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모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밝혔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실행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실무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1천만 서명운동도 추진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국회 오늘부터 쌀 직불금 국조

#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

쌀 소독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직불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가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상사만 만큼 여야는 ‘저격수’들을 국조 특위에 배치하는 등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주말과 휴일인 8~9일 막바지 전략 점검에 몰두했다.

통상적으로 국조는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은 수비하기 바쁜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번 쌀 직불금 국조는 누가 공격하고 누가 수비수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도로 한바탕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전, 현 정부 책임론’ 공방이 예상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지급제도를 도입한 참여정부가 부실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감사를 벌이고도 결과를 은폐하는 데만 급급한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 결과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낱낱이 밝혀겠다는 전략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초반 거론됐던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카드는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수석원내부대표는 9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쌀 직불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 정부에서 수립해놓은 집행계획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야당 측의 현정부 책임론을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인사들의 불법 수령 상태를 파악해 ‘감부자 정권’의 비도덕성을 부각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의를 부태우고 있다. 또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조 추진 과정에서 현정부 책임론을 참여정부 책임론의 맞불 카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급적 정치공방은 피하자는 입장이다. 직불금 국조가 여야간 정쟁으로 번진다면 사태 파악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요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깔고 있지만 정쟁으로 치달을 경우 민주당에 이로운 게 없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특히 직불금 제도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민의 피해 보전 성격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정부 여당이 한미 FTA 비준을 강행하려 하면서도 그동안 직불금 제도를 소홀히 다뤘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은 직불금 국조가 전, 현정부 책임론이나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보다는 직불금 제도의 결함 보완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수도권 규제 철폐 땐 경제협력 약속 철회”

### 민주당 박주선·안희정 최고 회견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9일 “경제위기를 핑계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할 경우 정세균 대표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한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약속을 접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안희정 최고위원과 함께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면 균형발전이 와해되고 지방이 공동화돼 정당이나 입법부에서는 목과할 수 없는 황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철폐는 헌법의 지역 균형발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야(野) 3당 공조로 저지하는 한편 시민단체, 지자체와 연계하는 장외투쟁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을



민주당 박주선(왼쪽) 최고위원이 안희정 최고위원과 함께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핵심지지 기반으로 두고 이를 경부축까지 확대하는 지방선거, 대선 전략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한

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헌법 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여야, 예산안·FTA 격돌 예고

중반전에 접어든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재정지출 및 감세 동시 확대’라는 정부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여야간 시각차가 선명하다.

또 한미 FTA에 대해 한나라당은 오는 17일 이전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 예산안=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국발(發)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적 경제침체에서 빠져나오려면 대대적인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 및 감세 확대는 ‘필요조건’이라는 것. 특히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세안은 재정지출과 함께 경기부양을 떠받치는 양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비판이 부각된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기조 중에서 재정지출은 맞지만 감세는 번지수가 틀렸다고 보고 있다. 중부세·법인세·상속

세 개정안 등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미 FTA 비준동의안=한나라당은 어떤 경우에도 오는 17일 이전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에서 레임덕 세션이 열리는 17일부터 3일간의 기간에 미국을 방문해 비준안 처리를 설득하려면 한국이 비준동의의 절충에 돌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벌써 의결위원회의 방미단 급과 계획도 세워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先) 대책 후(後) 비준’ 원칙에 따라 비준안 상정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정하고 한나라당이 상정을 강행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오는 12월 공청회에도 불참키로 했고 비준동의의 미 의회 처리 촉구를 위한 17일 방미도 거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연합뉴스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 \* 교과교육학 학습방법론 강의 \*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논술 첨삭지도 실시

# 곽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곽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야말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완성)

똑똑한 강의 선택!  
한 번 배워 평생가는 학습방법론 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동파  
곽내영 선생 저자직강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ie.net

# 에듀뷰넷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비번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곽내영고시학원 수강 문의: 광주 (대)529-0090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학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 지금도 지혜로운 많은 수험생들은 47년 전통의 무등을 찾고 있다 (청강환영) =

#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별 교세관법검찰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판정건호지방술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시험일자: 9급 국가고시(4월 11일, 7급 7월 25일)~시험 0,000원 7-9급 지방고시 5월 하순 시험 ※09년 1월1일 이후 부여 응시 사항 연방이 폐지된다.

개강 11월 17일(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교재17만원포함)  
3주·야간반+기초(英·國)부족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실함.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222-4560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세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10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초음시작하신분을 위한 기초이론 강좌

목포점 개원 12월 1일 개강예정

국비무료 교용보험제자 교육비환급

목포해당지구 대성원 건물 3층 061)277-8111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선착순 60명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을 1위 전국수석합격

#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529-8111

학장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명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1월 10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주부반, 성인반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간반, 야간반)

#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교용보험 발급과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합격률 99% 원만점 ☎ 971-0002 (구)백마동 삼광빌딩 4층